



구로병원 2022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2022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 지난 6일(목) 오후 4시 압병원 3층 심학기룸에서 진행됐다.

산안위는 노사 대표위원 및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회의 시작에 앞서 노동조합측 새로운 전임자 소개 및 노사 대표위원 인사 시간을 가졌다.

산안위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지난 산안위에서 논의되었던 안전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안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정희진 병원장, 즐겁고 안전한 직장 만들자.

정희진 병원장은 인사말로 “지난 산안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 그 사이 교섭도 있었는데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 된 것 같다. 산안위 통해서 즐겁고 안전한 직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노재옥 지부장, 산안위를 통해 이뤄낸 성과들이 많다. 노사가 더욱더 노력하자.

노재옥 지부장은 “노사 교섭이 자율 타결되어 3/4분기 산안위 시기와 들어맞아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지금까지 산안위를 진행하면서 논의되었던 임산부 보호 물품 제공, 탄력스타킹 제출 서류 간소화, 부서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등의 안전들이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 이처럼 작은 안전부터 큰 안전에 이르기까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사가 더욱더 노력해야겠다. 산안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져야 할 대상이 외주업체 직원들까지 확대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시민재해까지 사용주가 책임져야 하는데 사용주는 병원장이다. 미래관 증축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직원 및 시민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 및 결과 >

안전		답변
지난 산안위 이행 점검 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건】 ① 간호사 간편복 세탁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자. ② 수거 횟수는 늘었지만 세탁 횟수는 동일하다. 대중소 간편복으로 변경해야 한다. 비용이 점점 줄어든 것이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다시 논의해달라.	① 외래는 주 1회, 병동은 주 3회 수거하고 세탁은 주 1회 실시하고 있어 큰 불편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가 바뀌었으니 여벌 옷이 있을 것이다.

		② 3개 병원이 논의해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영양팀 관련 위험성평가 진행 요구의 건】 영양팀 직원의 50% 이상이 다양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성평가는 부서원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것이라 결이 다른 것 같다. 위험요인을 확인하려면 안전지도 컨설팅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과 현장의 위험요인을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촉해야 한다.	계속 논의되는 안건이지만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건	【안전요원실 방한 장갑지급 건】 ① 겨울철 근무 환경 개선위해 방한 장갑 지급이 필요하다. ② 코드작업을 통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자.	① 이미 매년 장갑과 귀마개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도 지급 예정이다. ② 3개 병원 통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검토해보겠다.
	【환경관리실 1인 근무 금지의 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실 1인 근무를 금지하고 2인 이상 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구로는 처음부터 2명이 정원이었으나 현재는 1.5명으로 기계실과 환경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근무배치를 정확히 하자.	오전에는 환경관리실, 오후에는 기계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3교대 근무자 중 암 진단자 야간근로 배제 건】 ① 3교대 근무자 중 암 진단자를 야간근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안암과 안산은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직원들을 배려해주고 있다. 구로도 결단하면 된다.	① 병원 차원으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② 알겠다.
	【전화 통화시 폭언예방을 위한 녹음방법 매뉴얼 설치 건】 ① 전화 통화 시 폭언예방을 위한 녹음방법 매뉴얼 설치를 요구한다. ② 원외에서 원내로 전화 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언/폭행 금지”에 대한 안내멘트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보자.	① 2021년도에 녹취 서버로 바꾸면서 매뉴얼과 스티커를 준비했다. 급한 부서가 있다면 먼저 포탈에 올려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스티커를 3개 병원 통일해 배포하는 것은 간호부와 논의해서 하면 좋겠다. ② 정신과는 먼저 처리하겠다. 기타 부서는 원내와 원외 구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
	【침상커튼 탈부착 전문 인력 배치 요청 건】 병동, 중환자실, 항암치료실 등 환자용 침상 커튼 탈부착 시 직원들이 직접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급한 상황일 때는 해야 할 수 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한다. 방향성은 인정한다. 실태 파악 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소수 의료기술직 위생복 개선 건】 소수 의료기술직 신규 직원은 1년에 1벌을 지급받고 있어 근무복을 빌리거나 집으로 가져가 세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	검토해보겠다.
현안문제	【직원휴게실(에코라운지)과 안전보건관리실 출입구 분리】 휴게실의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직원들의 온전한 휴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입구에 파티션을 설치해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새롭게 문을 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파티션 설치를 검토해보겠다. 휴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테리어 할 계획이다. 당장은 어렵지만 추후 공간계획 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